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 대학	기간	2019.1.15.~2019.2.5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알고마 대학교는 캐나다 수세인트마리에 위치해 있으며, 그 곳까지 약 14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합니다. 수세인트마리 내에서 제가 머물렀던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4 SC)를 타고 약 5분을 가야합니다. 학교 내에 가면 International Student에 대해 따로 케어하는 부서가 있는만큼, 국제 학생이 많습니다. 알고마 대학교의 선생님들 모두 학생들에게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수업	첫 수업을 하기 전 분반을 합니다. 분반은 Placement test를 통하여 분반을 합니다. (Intermediate, Advanced) 두 개의 반으로 분류합니다. Advanced 반 기준: 1. Grammar, Benjamin Miller: 수업 때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가르치고 싶어서 첫 수업때 Ben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Ben 선생님의 수업은 과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단, Ben 선생님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문법 중에서도 꽤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또한, Ben 선생님은 자신의 문법 지식에 대하여 상당히 투철하시고 자신 있으십니다. 그리하여 문법적으로 오류가 잘 없으시며, 문법에 대하여 깊이 배우고 싶으신 분이나, 어려운 문법이 있었다면 이 분과 대화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Listening through Media, Nicole Gajda: Nicole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첫 수업때 Nicole로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주제는 Listening through Media인 만큼 난이도가 있는 주제로 선택하십니다. 이번 수업 때는 'Climate change'를 주제로 하셨으며, 과제를 한번 주셨습니다. 조별 과제(현장)도 주시고, 개인 과제도 주십니다. 또한, 수업 때 다루는 내용과 관련해 영상을 준비해 오시는데 주제가 난이도가 있는 만큼 영상의 내용이 살짝 어렵습니다. 3. Reading/Cultural Studies, Julia Duncan Julia 선생님의 수업은 흥이 넘치고 웃음이 많으십니다. 수업 때도 강의

	식 수업을 하나, 학생들과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수업 때 자주 농담하시고 그러십니다.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캐나다 수세인트마리에 있었던 민족 혹은 부족에 대해 배웁니다. 배우는 도중 단어 및 문장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질문을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도와주시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업 때 부족에 대해 배우고 나면, 그 부족이 지은 건물들을 탐방하며 설명을 듣는 수업이 있습니다. **Advanced 반 수업 비중: Grammar > Listening through media > Reading/Cultural Studies** 4. ALL: All로 표기된 수업은 봉사 준비, 이벤트 준비 등을 하는 수업입니다.
Activity	Ski, S'mores and more: 스키와 장작불 위에서 마시멜로 및 초콜릿을 구워 먹는 '스모어'라는 것을 합니다. 스키의 경우, Beginner인 저도 쉽게 배운 만큼 강사가 잘 가르칩니다. 스키뿐만이 아닌 스노우보드 강사도 있습니다. 스키의 경우, 스키와 스키폴, 헬멧, 스키부츠 등은 빌려주지만, <u>스키복은 빌리는 곳이 없습니다.</u> 또한, Searchmont resort 내에 매점이 있는데 꽤 맛있습니다. Alpaca Farm: 알파카를 보러 알파카 농장으로 갑니다. 농장에서 알파카를 보고 먹이 주기 체험을 하고 나면, 알파카 털로 만든 장갑, 모자, 인형 등을 팝니다. Dog sledding: 개썰매를 타러 가는 것입니다. 개썰매는 1번당 2명이 탈 수 있고, 생각보다 느려서 옷이 눈에 젖지 않습니다. 젖을 것 같으면 스키 바지를 챙겨가세요. Hockey game: 하키 경기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하키 경기장은 버스 터미널 바로 옆 쪽에 있습니다. 경기장 내에 가면 매점이 있습니다. Snowshoeing and Sleigh Ride of Mockingbird Hill Farm: 날씨가 매우 춥고 농장에 문제가 생겨 못 갔습니다. 이처럼 날씨 때문에 activity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 잘 걸리면 감기약이 필요합니다. 수세인트마리 날씨는 대부분 1~2월 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영하 20도, 최대 영하 31도(체감온도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처음엔 춥지만 적응하면 별로 안춥습니다. 두꺼운 패딩이 꼭 하나 있어야 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한국처럼 지나갈 때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단, 몇몇 신호등은 넘어가고 싶을 때 눌러야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길거리의 경우 무단횡단처럼 넘어가야 합니다. 차가 완전히 지나간 후 지나가세요, 위험합니다. 실제로 길거리 잘못 횡단하면 자동차 창문 열고 욕합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이 한국처럼 멀리 멀리 있지 않고, 간격이 좁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내려야 하는 곳에 못 내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 정류장에 내리면 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알고마 대학교 측에서 공항에 내렸을 때 홈스테이를 1인당 1명씩 배정해 주었습니다. 홈스테이는 아주 쾌적하고 좋으며, 홈스테이 할머니께서 요리를 매우 잘하십니다. 규칙은 11시 전에 시끄러운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샤워시설을 사용할 경우, 물이 욕조 밖으로 새지 않도록 커튼 설치를 잘해야 합니다. 추위를 잘 타는 경우, 웬만하면 방에 난로가 없으므로 파자마를 두꺼운 것을 입어야 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밥은 홈스테이 할머니께서 다 해주시며, 점심의 경우 전날 저녁의 leftovers를 먹습니다. 학교에 전자레인지가 있으므로 데워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학교 매점과 Tim Hortons이 있습니다. 학교 매점의 경우, 푸틴의 경우 먹어볼만 합니다. Tim Hortons의 도넛은 엄청 맛있었습니다. 저녁은 가끔씩(3회) 친구랑 나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교통	집에서 학교까지는 정류장까지 걷는 거리 포함해서 약 15분입니다. 집 근처 정류장에서 학교 정류장까지 5분이었지만, 버스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10분이 지연된 시간에 옵니다. 버스는 언제 있을지 모르므로, Google Map을 통하여 버스 시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잘 모를 땐, Google Map에서 Gps를 켜놓고 버스 정류장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버스는 늦는 경우도 있으나, 정해진 시간 전에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어도 5분 전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15,000	
보험료	22,200	개인마다 다름
토론토 공항 수하물 보관	12,000	
개인 지출 비용	350,000	음식, 기념품 등 모두 포함
합계	2,099,200	

5. 출국 전 준비사항

- 첫 만남때 홈스테이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사주세요.
- 큰 가방 1개, 작은 가방 1개 챙겨가세요.
- 수세인트마리 맛집을 알고 싶으면, 홈스테이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 출국 전 홈스테이 부모님과 함께 음식 기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번 알고마 대학교에서 ESL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 깨달은 것은 홈스테이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경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외식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홈스테이에서 해주는 요리는 캐나다 문화가 담긴 요리이고 이것만큼 캐나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캐나다 내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홈스테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외식하면서 친구와 대화 나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홈스테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지나치다고 느껴질 만큼 상당히 잘해주셨습니다. 다시 수세인트마리에 여행을 하고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Joanne 할머니를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집 Living room	Giovanni's 레스토랑 파스타



Tim Hortons 'Boston cream'



Macassin 만들기



집 도로명 주소



Burger don의 양고기 버거